

종합

“광양 경제자유구역 축소 안된다”

지경부 7개 지구 면적 조정·해제 요구

전남도·광양경제청 “현행대로 유지를”

정부의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 방침에 전남도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과장이 일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지식경제부가 광양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가능성이 낮은 7개 지구 면적 조정 조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경부는 지난달 광양경제자유구역내 개발가능성이 낮은 ▲광양 성향배후단지(1.02km) ▲순천 선월배후단지(3.71km) ▲광양 용강배후단지(1.88km) ▲순천·광양 신대·덕례배후단지(13.76km) ▲광양 포스코터미널(0.96km) ▲하동 덕천배후단지(2.65km) ▲여수공항(2.31km) 등 7개 단위를 제검토 대상으로 정하고 광양청에 해제 및 면적 조정 검토를 요구했다. 재검토 요구 대상지는 광

양만권 전체 22개 단지(95.52km)의 27.5%에 이른다. 광양청은 현재 단계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산단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 개발 면적을 줄이거나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광양 성향배후단지의 경우 관광향 배후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순천 선월배후단지는 주거 및 연구개발(R&D) 복합단지를 조성해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광양 용강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의 초남·익신·율천산단 개발로 유입되는 인구를 제 때 수용하

기 위해서라도 조기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신대·덕례 배후단지도 주거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양청은 이들 지역의 면적이 축소될 경우 당초 지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광양청은 그러나 여수공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KDI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제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오는 2012년 여수세계개발회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이후에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피살 베트남 여성 추모

국제결혼을 통해 부산으로 이주했다가 불과 8일만에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게 피살된 베트남 여성 고 퓌티황씨를 추모하고, 베트남 국민에게 사죄하는 행사가 28일 부산의 한 외국인 음식점에서 열렸다. 행사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전통음식인 띠오 비 사오를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 내달부터 3%대 인상

도시가스 요금도 오를듯

전기요금이 내달 1일부터 3%대 인상된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최종 요율을 조정하고 있다. 지경부는 전력수급 상황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등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3.9%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해 3%대 초반 인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야별로 산업용 전기료는 평균 5% 안팎에서 상승률이 결정되고, 주택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삼야전력 요금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달 중 도시가스 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이에 맞춰 2008년 부터 중단한 원가연동제를 재도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실국장급 인사 단행

전남도는 28일 건설부재국장과 문화관광국장 등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 1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4면> 지방 부이사관(3급)으로는 관광문화국장에 양복완 순천부시장을, 미래전략기획단에 이점관 목포부시장을, 관광진흥과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에 김동현 행정개발본부장을 임명했다. 3급 부단체장인 목포부시장은 박내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이, 순천부시장은 서복남 관광문화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또 건설부재국장은 전승현 지역계획과장을, 관광청 행정개발본부장에는 이호경 비서실장을, 중소기업중

합지원센터 본부장에는 주신호 정책기획관을 각각 승진 발표했다. 3~4급 자리인 정책기획관에는 이승욱 종합민원실장이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 서기관(4급)인 비서실장에는 윤인후 경제통상과장을, 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장에는 임대영 장흥부군수를, 동부출장소장에는 고대석 강진부군수를,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에는 주영환 담양부군수를, 남해안선별특구관리 지원관에는 유동수 신안부군수를 전보했다. 전남도는 4급이하 후속인사도 8월 초까지 모두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결혼적령기 여성 10명중 6명 '미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30년만에 5배 급증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생명중 두 명은 미혼인 채 30대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자들조차 14%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급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결혼과 출산율' 보고서에서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이 1975년에는 11.8%였으나 2005년에는 59.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 28일 밝혔다. 이들 결혼 적령기 여성의 미혼율은 1990년 22.1%를 기점으로 1995년 29.6%, 2000년 40.1%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미혼율은 같은 기간에 62.5%에서 93.7%로 높아졌고 30대 초반(30~34세) 여성은 2.1%에서 19%, 30대 후반(35~39세) 여성은 0.7%에서 7.6%로 높아졌다. 특히 45~49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이 30년 전에는 0.2%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2.4%에 이르렀다. 아울러 평균 초혼연령이 1981년 남성 26.4세, 여성 23.2세였던 것이 2008년에는 남성 31.4세, 여성 28.3세로 서 낙차는 5.0세, 여자는 5.1세 늦어졌다. 지난해 전국의 기혼여성 3585명과 미혼여성 3314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데 기혼자는 14.1%, 미혼자는 20.3%만이 동의했다. /연합뉴스

KTX호남선 이용객 상반기 325만명

작년동기비 3% 늘어

KTX호남선 이용객이 1년새 3%가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의 철도 이용객이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20억9430만명으로, 하루 평균 198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KTX 이용객은 5.2% 늘어난 1934만명으로, 하루 평균으로 10만7000명이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이용객이 1609만명으로 5.7% 늘어났고, 호남선은 325만명으로 2.9% 증가했다. 승차거리별로는 통근수요가 늘면서 단거리 100km 이하 승객이 10.1%

늘었고, 장거리 300km 이상은 4.6% 증가했다. 장거리 이용객 증가는 KTX-산천호의 신규 투입과 용산~목포의 호남선 평일 2회 열차증편, 서울~동대구 열차의 운행구간 연장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새마을호 이용객은 549만명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무궁화호 이용객은 신규 차량인 '누리호' 운행으로 2.3% 늘어난 2830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통근 열차 이용객은 작년 7월 경의선 광역철도 개통으로 운행구간이 단축되면서 80.6%나 감소했다. 광역 및 도시철도(지하철) 이용객은 작년보다 5.5% 증가해 하루 평균

1080만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광역철도 이용객은 문산~DMC 간 경의선 광역전철 개통과 작년 12월 청량리에서 용문에서 이르는 중앙선 광역전철 구간 연장의 영향으로 3.7% 증가했다. 도시철도 이용객은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통과 서울지하철 3호선 및 인천지하철의 연장개통으로 6.7% 늘었고, 지방에서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체계 확충으로 3.1% 많았다. 을 하반기에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부산 구간이 개통하고 창원 등 경남권에도 KTX가 운행될 예정이어서 KTX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Sunlight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services.

판결공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판결공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자본감소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한국한자문화진흥원. 2010년 7월 28일.

합병합병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합병합병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판결공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판결공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판결공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합병합병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합병합병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합병합병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판결공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판결공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판결공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합병합병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합병합병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

합병합병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우정. 2010년 7월 28일.